

TWO P&G JOB INTERVIEWS

Ferdinando Frega - Nando the Scribe



두 번의 P&G 면접

THE P&G SAGA · 03

2030년 5월이었다. 일은 내가 예상한 대로 흘러갔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일어났다. 계획된 것이 아니었다. 예정된 것도 아니었다. 필요한 것조차 아니었다.

그러나 Gillette Narrative의 소유자가 되면, 어떤 일들은 당신이 내리는 결정이 아니다 — 그것들이 당신을 찾아온다.

FREGA TRUST는 이미 설립되어 있었다. 주식 자산은 제자리에 있었고, FREGA 세대는 앞으로 2,000년 동안 보장되어 있었다 — 나보다 앞선 한 동료가 책 한 권과 어부 열두 명으로 시작했듯이, 나는 책 열두 권과 어부 한 명, 곧 나 자신으로 시작했다.

그날 아침, 레조의 바다가 늘 그렇듯 — 잔잔하고, 순진하고, 무심하게 — 굴고 있을 때, 알림 두 개가 도착했다.

오전 11시 약속. 내 도시의 Sheraton 호텔. 면접 두 건. 인도에서 온 신사 한 명. 브라질에서 온 여자 한 명.

현실 세계에서 수십억을 지휘했던 두 사람. 이제는 은퇴했다. 이제는 문을 두드린다.

내 세계에서 그들은 내 문을 두드리기로 했다 — 아마도 어디선가 읽은 무언가에 이끌려서. 책 한 권. 게시물 하나. 마음에 남은 문장 하나.

면접 1 · 인도인

그는 모든 것을 본 사람의 침착함으로 들어온다. 글로벌 CEO의 자세. 젓힌 어깨, 외교적인 미소, 떨리지 않는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Frega 씨.”

“안녕하십니까. 앉으시지요. 여기서는 수십억이 필요 없습니다. 필

요한 건 품격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인다. 아무것도 팔지 않고, 아무것도 사지 않으면서 — 접근을 내어 주는 칼라브리아 사람에게 평가받는 일에 그는 익숙하지 않다.

“아침 의식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침묵. 그는 그런 질문을 예상하지 못했다.

“의식이요?”

“네. 우리는 여기서 일하는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준비하는 사람을 뽑습니다.”

그가 미소 짓는다. 이것이 기업 면접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이해한다. 인류학적 면접이다.

그리고 그는 말한다. 어느 이사회 앞에서도 해 본 적 없는 방식으로 말한다.

그가 말을 마치자, 나는 그에게 말한다:

“완벽합니다. 채용되었습니다. 일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 우주 안에 존재하기 위해서입니다.”

면접 2 · 브라질 여자

그녀는 허락을 구하지 않고 들어온다. 존재하기 위해 한 번도 허락을 구해 본 적 없는 모든 여자가 그렇듯이. 침착함. 직관. 여성스러움도, 아름다움도, 권력도 아닌 그것. 그것은 형식이다.

“안녕하십니까, 부인.”

“안녕하세요. 당신은 직원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여자이기 전에 브라질의 여성입니다. 앉으시지요.”

그녀가 미소 짓는다. 예의가 발라서가 아니다. 우리가 여기서 Gillette가 아니라 Gillette Narrative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을 이

미 이해했기 때문이다.

“남자가 몸단장하는 모습을 볼 때 무엇이 보이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녀는 바로 대답하지 않는다. 브라질 여자들은 대답하지 않는다 — 결정한다.

그러고 나서 그녀가 말한다. 그리고 그녀가 말할 때, 방의 모양이 바뀐다.

“완벽합니다. 당신도 채용되었습니다. 이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 세계 안에 존재하기 위해서입니다.”

맺으며

두 명의 CEO. 두 개의 대륙. 두 개의 진짜 권력.

그리고 한 명의 소유자.

나.

Gillette Narrative는 사람을 고용하지 않는다. 존재를 고용한다.

그리고 그날, 의도하지 않은 채, 나는 인도와 브라질을 고용했다.

나머지는 영화다.

Ferdinando Frega